

문명의 전환기에 되살리는 실사구시의 전통

《실사구시의 한국학》 펴낸 임형택 교수

임형택 교수가 펴낸 《실사구시의 한국학》은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에 한국학과 민족문화가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임교수는 이 책에서 민족적 정체성과 물질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실사구시의 전통회복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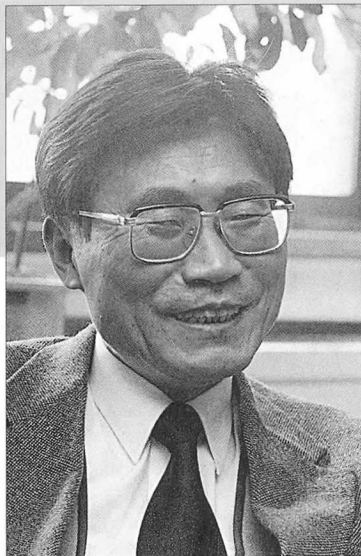
임형택 교수(57, 성균관대 한문학과)가 《실사구시의 한국학》(창작과비평사)을 펴냈다. 1984년 펴낸 《한국문학사의 시각》 이후 16년만이다. 《한국문학사의 시각》이 10세기 초 전기(傳奇) 문학 연구에서 출발해 신문학운동기까지 주체적인 국문학사 서술의 실마리를 열었다면, 이 책은 시야를 넓혀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에 한국학과 민족문화가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민족의 위기 극복 위한 주체적 학문의 길

새로운 길은 지나온 길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데서 열리는 법. 임교수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에 한국학의 정체성을 묻는 데서 출발한다. 서양의 자본주의 문명이 전통적 문화양식을 유린·해체하고 통합함에 따라 개별 민족문화가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임교수의 이런 진단은 우리의 근대학문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서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근대학문이 수립된 것은 1930년대였습니다. 민족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조선학운동’이 성립됐지요. 이때 조선학의 원천으로서 조선후기의 실학이 학문적으로 조명됐습니다. 실학의 학문전통으로 위기의 민족현실을 타개하자는 뜻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조선학은 ‘국학’이란 이름으로 이어졌다. 민족주의적 열기에 따라 잠시 국학중흥의 기운이 일었지만 분단체제의 성립으로 국학



임형택 교수

은 실종되고 말았다. 더욱이 90년대 이후 세계화의 논리에 밀려 이제 국학은 보호대상이 돼야 하는 운명에 놓였다. 임교수가 실학과 실사구시에 주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학은 세계사적인 차원에서는 서세동점의 조류에 대한 주체적 대응이었습니다. 민족적 차원에서는 민족의 자아를 발견하고 중세의 봉건적 질곡에서 벗어나려는 해방적 의미가 담겨 있지요. 또한 문학적으로는 민족의 현실을 형상화하려는 현실주의적 문학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임교수는 특히 〈박지원의 인식론과 미의식〉에서 중세의 억압과 질곡을 해체하려는 연암의 미

학적 도전을 높이 평가한다. 연암은 사물을 운동·변화하는 것으로 보고, 사물을 상대적으로 파악해 각각의 존재의미를 균등하게 인정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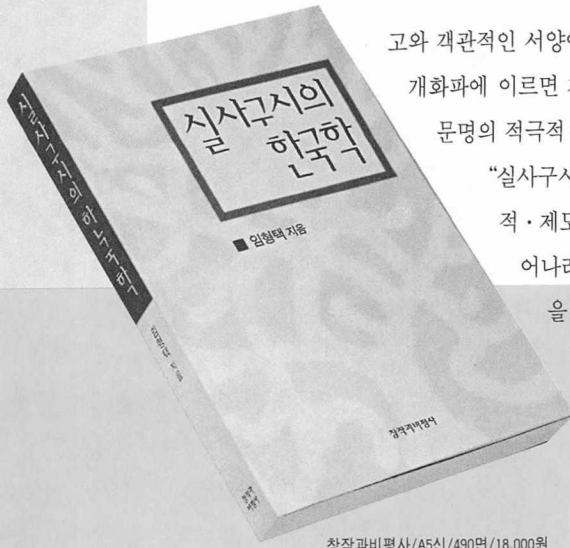
“박지원을 비롯한 실학자들은 여전히 중세적 사유의 틀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처한 시대적 한계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봉건적 질서를 극복하려는 근대지향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근대학문 성립 이후 박지원·정약용·최한기 등의 대가들만큼 학문적 위업을 이룬 이가 과연 있었는지 임교수는 묻는다. 외국의 선진이론을 수입하는 데만 급급했지 전통의 기반 위에서 외국학문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데 게을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가 ‘계몽적 지식인’으로서 실학파를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학자들은 좁게는 우리의 문제, 넓게는 세계의 문제를 끌어안고 학문적으로 고민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개방적인 학문자세를 지녔습니다. 과거의 학문을 묵수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과 세계의 동향을 찾아 나섰지요. 그들이 위대한 학문체계를 수립할 수 있었던 데는 이런 정신적 배경이 있습니다.”

‘실사구시’는 근대지향의 과학적 학문방법론 그렇다면 21세기 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에 국학 내지 한국학이 나아갈 방향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이 책에서 임교수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실사구시’의 학문방법이다. 실사구시의 개념이 우리의 학술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풍부해졌는지 밝히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실사구시’란 말은 실제 사실에 입각해 진리를 찾는다는 뜻으로, 시대마다 그 의미를 조금씩 달리해왔다. 김정희에게 그것은 실증적 방법론이었고, 19세기 중반 서세동점기에는 과학적 사



창작과비평사/A5신/490면/18,000원

고와 객관적인 서양이해를 의미했다. 개화파에 이르면 제도개혁과 서구 문명의 적극적 수용을 뜻했다.

“실사구시는 중세의 사상적·제도적 질곡에서 벗어나려는 지적인 정신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근대학문은 서구 방법론을 수입해 민족문화를 탐구하려 했습니다. 하지

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맞을 리가 없지요. 역사적 토양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현실에 입각해 거기서 올바른 원리를 찾아내야지요.”

임교수가 실사구시 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지난 시대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비판에서 비롯된다. 임교수에 따르면, 진보적 급진성이 제기됐던 1980년대는 이념의 강박관념 때문에 실증정신은 상대적으로 후퇴했다. 현실 사회주의권의 몰락도 결국은 현실에 입각하지 않는 이론적 공소성(空疎性)에서 기인했다고 판단한다.

동아시아 전통의 회복과 계승

실학적 전통의 부활과 함께 임교수가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동아시아 전통의 회복이다. 그는 <한국문화에 대한 역사적 인식 논리>에서 중국중심의 동아시아 세계를 ‘한자문명권’으로 명명한다. 중국중심주의가 주변부의 민족국가를 억압하고 정신적 질곡으로 작용했지만, 실학자들과 고려말 문인지식층이 세계적 흐름에 진취적으로 대응하고 선진문물을 흡수하려 했던 것을 높이 평가한다.

“과거 우리의 민족문화는 한자문화권 속에서 형성됐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본다는 것은 동아시아 세계 속에서 우리 문화를 어떻게 새롭게 발전시켜왔는지 점검하는 일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인류적 의미를 지니는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편, 실학적 전통의 현재적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임교수가 주목하는 것은 다산의 민주적 정치사상과 조선 후기 지식인의 분화현상이다. <정약용의 민주적 정치사상의 이론적·현실적 근거>는 다산사상의 진보적 정치사상이 압축된 <탕론>과 <원목>을 분석한다.

천자로서 천자노릇을 잘못하는 자를 갈아치우는 것의 정당성을 밝힌 <탕론>, 인민이 통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민을 위한 존재임을 규명한 <원목>은 오늘의 민주·민중 운동의 사상적 연원이다. 그렇다면 이런 혁명적 사상은 단지 천재적 공상에서 나온 것인가.

“정약용의 민주사상에는 고도의 정치적 상상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19세기의 사회현실, 특히 역사의 전진을 추동한 농민 저항 운동에서 나온 상상력입니다. 결국 민의 정신적 자각이 다산의 정치사상에 반영됐던 것입니다.”

민의 자각과 지식인의 분화현상

조선 후기 사회를 뒤흔든 민의 자각은 18, 9세기 지식인의 분화현상과도 연결된다. <18세기 예술사의 시각>에서는 유득공의 <유우춘전>을 통해 예술가적 자의식을 지닌 예능인의 출현에 주목하고, <이조 말 지식인의 분화와 회작화 경향>에서는 조선 체제에서 방출·분화된 지식인들이 문학을 민중과 결합시켰음을 입증한다.

“조선 후기의 중요한 사회변화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민의 자각과 지식인의 분화입니다. 백성이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일부 지식인들은 민주적 정치사상을 발전시키고 어떤 지식인들은 지배체제를 조롱하면서 그들의 의식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임교수는 현재 민족문화사 연구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 연구소는 1990년대 초 진보진영의 이념적 지향성이 한계에 부딪친 상황에서 소장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학술단체 가운데 하나로, 인류·사회의 진보적 방향에 기여하는 민족문학을 연구한다. 이 책에 일관되게 흐르는 정신도 여기에 있음은 물론이다.

임교수는 성균관대의 BK21 사업단장 직책도 맡고 있다.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 연구’라는 주제로 앞으로 7년 동안 연구작업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인문학의 위기 담론이 유포되는 상황에서 그가 맡은 임무는 무거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는 이 짐을 ‘즐거운 고통’으로 여기고 있다.

“인문학의 위기는 자본주의가 주도하는 물질문명의 논리가 낳은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문명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인문학의 가치는 더욱 강조돼야 합니다. 인류적 위기에 대한 성찰은 결국 인문학적 비판정신에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박천홍 기자